

익어 가는 포도의 향기와 품격 높은 정신의 향기

김현자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교수, 문학평론가

1. 쉬운 시와 좋은 시

시를 가르치면서, '시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나올 때마다, 얼른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있다. -추상적 세계를 구체적 이미지로 압축적으로 그려 낸 것- 대학 시론 교과서의 가장 첫 장에 나올 법한 이 말은 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면서도 실상 시 자체보다 더 어려운 감이 없지 않다. 이 잘 요약된 모범 답안 같은 말에서는 왜 시에 대해 운운할 때 구체와 추상이라는 말이 나와야 하는지가 설명되어 있지 않다. 물론 여기에 산문과는 다른 시의 몇 가지 속성, 예를 들면 '명징하고 절제된 언어를 사용한다', '리듬이 있어야 한다' 등의 설명을 부가한다 해도, 여전히 왜 좋은 시는 감동을 주는 것인지, 그리고 그 감동은 세월이 지나도 왜 변하지 않는지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필자는 '시란 무엇인가'라는 질문 앞에서는 좋은 시를 제시하고, 꼼꼼히 정성스럽게 읽는 것이 가장 훌륭한 답이 되리라 생각한다. 육사의 <청포도>는 '시란 무엇인가'를 쉽고도 깊이 있게 깨우쳐 줄 수 있는 명편(名篇)이라고 할 수 있다.

초여름, 자연의 눈부심과 함께 〈청포도〉를 읽는 기쁨은 싱그럽다. 청포도라는 제목에서부터 맑고 시원한 포도송이를 떠올리는 시각적 기쁨과 새콤달콤한 미각적 즐거움, 그리고 손에 닿는 촉감을 한껏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시를 읽는 첫인상은 포도가 익어 가는 계절을 해맑게 묘사했다는 것 정도면 충분하다 할 수 있다. 시가 그려 내는 정경과 시에 등장하는 사람과 그 속에 담긴 이야기와 분위기를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심층의 계단을 내려가는 첫걸음이라. 〈청포도〉는 표면적 의미에서는 포도와 마을과 하늘과 바다와 나의 소망을 진술하고 있으면서도, 그 심층적 의미는 기다림이라는 삶의 이념 체계와 깊숙하게 연결되어 있다. 즉 포도의 성숙(成熟)과 손님의 도래(到來)가 기다림이라는 추상적 영역을 향해 이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두 개의 표상은 서로 서로의 안에 완전히 용해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육사는 단순한 물질로서의 포도의 성숙을 묘사하면서 그것을 통하여 일상적 체험과 정서 이상의 것을 획득하고 있는 것이다.

2. 기다림의 이중 구조 - 포도의 성숙과 손님의 도래(到來)

내 고장 칠월은

청포도가 익어 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주저리 열리고

먼 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단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靑袍)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은 함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이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청포도(靑葡萄)〉

시가 함유하는 의미의 진폭은 항상 독자 앞에 자유롭게 열려 있다. 그러므로 청포도라는 쉽고도 친근한 우리말로 가득한 이 시가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포괄하는 추상의 영역을 획득해 가는가, 다시 말해 구체적인 물질성의 시어가 인간의 정신과 존재의 의미 영역으로 어떻게 전환되어 가는가를 주목해 보면 〈청포도〉가 갖는 감동의 본질이 들여다보일 것이다.

1연에서는 내 고향, 칠월, 청포도가 시간, 공간, 사물의 중심에 떠오르고 있다. 누구라도 친밀감을 느낄 만한 싱그러운 칠월의 푸르름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한 비평가는 1연의 의미 단위를 시간(칠월)/공간(고장)/사물(청포도)의 세 꼭지점을 지닌 삼각형으로 보면서, 이 삼각형이 자연에서 우주로 그리고 인간계로 패러다임이 변화되어 가는 것이 청포도의 묘미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만큼 1연의 배경은 단순하지만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존재 조건을 두루 포함하고 있다는 것일 테고, 이 배경 안에서 서 있는 화자의 소망과 기다림이 독자 누구에게라도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마을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화자를 중심으로 한 평이한 서경(敍景)은 전설과 바다와 포도 등의 시어와 어우러지면서 시간과 공간을 포도송이 속으로 응축해 가는 시적 상상력으로 전환되어 간다.

2연의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주저리 열리고'는 원관념인 포도가 생략된 은유의 형태인데, '주저리 주저리'라는 의태어는 전설과 포도를 일치시키면서 전설이라는 시어의 느낌을 풍성함, 신비함, 비현실적인 투명함으로 감싸고 있는 것이다.

전설이야말로 잃어버린 과거에 대한 꿈과 자기 존재의 근원에 대한 추억의 다른 이름이 아닌가. 또한 공간적으로도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라고 하여 지상에 열매 맺은 포도 안에 하늘의 꿈까지도 모두 응축시켜 버리는 능동적인 상상력의 일면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전설을 간직하고 있는 포도를 통해서 화자는 하늘, 즉 무한히 넓은 외부 세계가 자기 속으로 들어오고 동시에 자신이 확대되면서 온 우주에 자신의 숨결이 퍼져 나갈 수 있는 투사(投射)의 개념을 획득하고 있다.

3연의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라는 구절은 과거의 시간을 탐색하였던 1, 2연의 영상과 연결되며 시간의 지속성을 상징화한다. 이 시에서 바다는 어떤 미래의 시간으로 화자를 이끌어 주는 것으로 이질적인 것을 결합시키고, 떨어졌던 것들을 이어주는 대상이다. 이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바다와 바다의 전령인 흰 돛단배의 이미지가 전설의 시간으로부터 시간을 축적시키고 하늘의 공간을 응축시킨 포도 위로 겹쳐지면서, 이 포도에 미래를 향한 예비와 기다림의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육사의 상상력 속에서 물의 이미지는 바다, 강물, 시냇물, 푸른 샘, 밀물, 해조(海潮) 등으로 다양하게 변용되며 불연속과 혼동 속에서 인간 의식에 질서와 연속성을 회복시켜 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4연에서부터는 이 시의 중심 인물인 나와 손님이 등장한다. 어쩌면 3연까지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성찰은 이 두 인물을 위해 예비된 무대였는지도 모른다. 익어가는 청포도 아래에서 기다리는 나와 청포를 입고 찾아오는 손님은 음상(音相)적으로도 서로 자연스러운 교집합(交集合)을 형성하면서 숙명적인 만남의 시간을 예비한다. 그 만남을 위한 기다림과 그 안에 숨쉬고 있는 시공을 넘나드는 상상력의 깊이는 시인이 삶을 얼마나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가를 말해 준다. 사실 〈청포도〉야 인구에 회자되는 유명한 작품이고, 이육사의 전기적 사실은 청포도에 등장하는 손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었다. 그러나 청포도의 7월이 조국 광복을 예시했다는 예언가적 단언이나, 도포 입은 손님이

독립투사였다는 식의 주장은 시를 평면적인 일상어의 감옥에 가두는 일이 되기 쉽다. 시란 닫힌 틀 속에는 질식사할 수밖에 없다. 손님이 독립투사라면 포도는 무엇이고 전설은 무엇인가. 과연 이 다음 세대에도 독립투사의 노래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시에서 고달픈 몸으로 화자를 찾아오는 손님은 〈해조음(海潮音)〉에서는 지축이 흔들리게 달려오는 거인의 이미지로, 〈광야(廣野)〉에서는 백마를 타고 오는 초인(超人)의 이미지로 연결되고 있다. 그러므로 화자가 포도의 성숙을 기다리며 손님을 위해 은쟁반에 하얀 모시 수건을 마련하는 행위는 이육사의 다른 시 〈광야〉에서 눈오는 겨울에 씨를 뿌리는 것, 시 〈꽃〉에서 북쪽 쏜드라에도 찬 새벽에 눈 속 깊이 꽃 땀아리가 움작거리는 것 등과 그대로 연결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시인은 자꾸 시간과 공간을 축적시키고 응축시키는 것일까. 시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를 예비하는 현재이다. 이 현재는 시간적으로 말하자면 과거와 미래가 연속적으로 연결된 현재이다. 즉 시인은 현재의 상황 안에서 과거와 미래를 포괄하면서 시적 초월을 시도하는 것이다. 기다림이라는 의미로 수렴되는 현재적 시간의 의미는 〈청포도〉가 갖는 가장 중요한 시적 메시지가 된다. 이 시에서의 기다림은 포도가 성숙하는 시간이고 바다를 건너 손님이 찾아오는 시간이며, 농부에게 있어서는 수확의 시간이 된다. 또한 흔히 해석되듯 조국의 해방일 수도 있고 인간 각자가 지니고 있는 꿈이요 동경일 수도 있다. 그리고 전체 시의 의미 구조 속에서의 기다림이란 결국 삶을 살아가는 시인의 진지한 자세와 삶을 관조하는 정신적 깊이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마지막 연은 시 전체를 하나의 선명한 이미지로 정돈하면서 〈청포도〉를 또 다른 관념의 차원으로 이끈다. 백색 은쟁반의 반사적인 색채와 모시의 담백한 색채는 수고와 기다림, 땀방울에 실린 질량감을 제거하면서 삶에 대한 또 다른 초탈의 경지를 보여준다.

3. 보편적 아름다움과 영원한 감동

시에는 구체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 사물과 관념이 늘 긴장감 있게 맞부딪친다. 청포도, 하늘, 바다, 손님, 식탁의 시어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늘 쓰는 구체적인 단어들이면서도 이 시의 콘텍스트 안에서는 인생과 삶을 이야기하는 관념적 지표로 변화된다. 하지만 이 시가 언제 읽어도 아름답고, 누가 읽어도 감동적일 수 있는 이유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팽팽한 장력(張力) 때문이다. 구체적인 것과 추상적인 것, 이미지와 관념이 잘 어우러져 있으므로, 아름다운 그림이면서도 진지한 메시지이고 쉽게 읽히면서도 우리 영혼에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시 〈청포도〉의 포도, 하늘, 바다 등의 쉽고 평이한 자연어들이 불러일으키는 심상들은 부드럽고 담백한 풍경화처럼 다가오지만, 그 표층적인 영상 밑에는 삶이 주는 숙명적 고달픔과 수고로움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며 그 땀방울의 무게가 기다림으로 추상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화자에게 있어 기다림이란 만남의 환희라든가, 해피 엔딩과 같은 고대 소설적 결말을 기대하는 정서와는 사뭇 다를 수밖에 없다. 화자에게는 기다림을 감내하는 수고로운 현재가 더욱 의미 있는 것이며, 이 예비의 땀방울이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달픈 몸으로 찾아오는 손님과 함께 두 손을 함뱍 적시는 식탁을 나누는 것은 인생의 수고로움 뒤에 찾아오는 참된 안도와 평안을 느끼게 한다. ‘함뱍 적셔도 좋은’ 손 속에 살아있는 생생한 신체 감각의 이미지는 나와 손님, 현재와 미래를 조화롭게 화합시키면서, 오래 인내한 자, 멀리 바라보는 자 만이 얻을 수 있는 축복과 충만함의 정서를 감동적으로 전달해 주는 것이다.

기다림과 수고와 만남과 땀방울을 응축하고 있는 ‘청포도’의 영상과, 이 모든 것 뒤에 예비된 ‘은쟁반 위의 모시 수건’은 한국 시사(韓國詩史)에서 오래 기억될 개성적인 이미지이며, 시 정신의 한 경지라 할 수 있을 것이다.